

선교 지역에 재미있는 이야기

2015년 5월 17일 아침 9시 40분 sbs 동물농장 714회 한지붕 두가족의 기묘한 동거에 남부교회가 방영 되었습니다.(다시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초 사택 화장실. 목욕탕 .수건장 제일 밑칸에 밖에 날아다니는 딱새 어미가 들어와서 집을 지은후 새알 6섯개를 낳아 6마리의 새끼를 부화하여 건강하게 키워서 날아갔습니다.철새없이 먹이를 물어주는 것이 신기하여 폰으로 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낸것을 인터넷에 올려 동물농장에서 검색하여 찾아와서 촬영 협조를 요청하여 촬영하게됨.

집을 지은날도 주일날 1달 10일 동안 건강하게 새끼들을 잘 키워서 날아간 날도 주일날. 모든 분들과 서울에서 새박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들 잘 보살피 주었으니 박씨물어주면 잘 심으세요. 좋은일이 있을것이라함 SBS 방송국 PD 2명이 5일간 밤 낮 촬영 우리 가족들도 많이고생했습니다 촬영후 2-3개월후 방영되나 촬영 5일후 방영됨

5월17일 방영후 다음 주일 5월 24일주일 2가정 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어미새, 새끼새 6마리 총 7마리 수되로 교인 7명 모두 신기하여 하나님께서 통해 교인을 보내 주셨다고 온 성도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도 보면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신기함을 발견함

새박사님 새들이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에 집을 짓는 것은 주인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기때문이라합니다.

상품권 30만원 보내 주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